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나래<sup>1\*</sup>, 소권섭<sup>2</sup>

<sup>1</sup>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p>2</sup>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buse of the Elderly

Na-Rae Bae<sup>1\*</sup>, Kwon-Seob So<sup>2</sup>

<sup>1</sup>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sup>2</sup>Dept. of Healthcare &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년층의 상당수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노인들의 자녀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와 같이 가족중심적인 비공식 부양체계가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은 곧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년세대와 이에 상충하는 젊은세대의 심리적 갈등은 언제라도 노인학대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우리사회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노인 학대 현상은 더욱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노인학대는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일회성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스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노인학대 문제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노인학대의 특수성 및 학대요인을 파악해 내고 노인학대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Abstract** Our country has become an aging society with unparalleled speed,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Many of the elderly are physically,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dependent; this dependence i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cost burden not only on the children and relatives of the elderly, but also at the social level. Under the prevailing environment of the family-oriented informal support system, the burden of support for elderly parents who rely on limited resources is highly likely to lead to abuse. Until now, dealing with the abuse of senior citizens has been mostly a one-off approach through media rather than academic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take an objective approach to the elder abuse problem (which has so far been dealt with in the media as a form of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grasp the specificity and factors of elder abuse and to present the Korean situation with regard to elder abuse.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prevent elder abuse in formal and informal ways.

**Keywords** : Domestic Violence, Elder Abuse, Social Welfare, The Battered Elder Syndrome, The Battered Parent

### 1. 서론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1980년대에 와서 인구구조의 연령적 변화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KonYang Cyber Univ.)

email: victory0302@kycu.ac.kr

Received November 5,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December 3,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를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고자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자식들은 “효사상”에 입각하여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절대적인 윤리관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노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자식에 의한 부양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산업화, 현대화로 인한 사회환경적 변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가족 구조적 변화, 그리고 개인주의 및 물질만능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효사상”만을 고집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단순히 가족중심적 비공식적 부양체계에만 맡기기에는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노령층의 양적인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년층의 사회의존성과 부양부담은 더욱 늘어나기만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층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 부양부담을 가진 자식들조차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벽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근본적인 환경적 어려움과 더불어 계속된 경제불황은 상당수 중년층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 부담 이외에 노부모 부양은 부가적인 부담일 뿐만 아니라 구차한 의무로 인식되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던간에 노부모에 대한 방치 내지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다시말해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중년층은 자신의 자녀들의 부담과 더불어 자신마저 부양받아야 할 과중한 부담 속에서 노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이 쉽게 무너져 버리면서 죄의식 속에서 분노와 실망, 혐오감으로 이어져 노부모를 학대하게 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반영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노부모 학대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적 가족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언급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으며, 한국적인 연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스컴에서도 나타나듯이 “노인에 대한 학대”는 더 이상 어느 특정 가족이나 특정 계층, 그리고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일탈현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장기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은 단순한 물질적 풍족이나 환경적 요인으로만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년세대와 이에 상충하는 젊은세대의 심리적 갈등은 언제라도 노인학대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짐은 이미 우리사회

의 한 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노인 학대 현상은 더욱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서 주목할 점은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노년기에 들어오면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낼 확률이 매우 높다. 재혼이라던가 개방된 이성과의 교제가 쉽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노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여성노인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족원들간의 갈등은 여성노인으로 하여금 학대의 희생자가 되는 취약한 구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노인의 빈곤, 의존성, 그리고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활동성 상실 등은 학대행위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하게 되고, 자녀들 측면에서도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여성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과부담이 개인적 차원으로는 벽한 현실속에서 과중한 역할이나 부양부담, 그리고 부양갈등이 빈번하게 학대 행위로 표출되기 쉬운 것이 현 실정이다.

지금까지 노인학대는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일회성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스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노인학대문제를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노인학대의 특수성 및 학대요인을 파악해 내고 노인학대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노인학대의 현실

노년층의 상당수는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노인들의 자녀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가족중심적인 비공식 부양체계가 압도적인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은 곧 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사회문제로서의 인식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게다가 전통적 가족주의,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에서 가족 내 노인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하여 막연하게 긍정적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노인의 권위나 지위는 상실되고 가족 내에서의 역할은 없어지면서, 가족 내에서 노인학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가족중심적 가치관과 현실의 모순 속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서구의 경우보다 더욱 은폐적이고, 사적이며, 뿌리깊이 만연되어 사회문제로 개방적인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적 상황에서 노인학대는 빈번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는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적인 틀에서 가족관계적인 접근과 사회환경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현 단계에서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물론 가정 내의 사적인 사건으로 간주 될 수도 있지만, 고령자 인구의 증가를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머무를 수 없다고 본다. 우리 전통적 유교윤리인 “효”와 “경로사상”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노인학대는 노인들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노인학대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깊이 분석 할 수 있는 현실분석과 분석의 현실적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개인적인 윤리체계 정립과 더불어 사회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되는 경제적 위기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기능을 더욱 악화 시키고 사회적 지원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충분하다. 폐쇄적으로 다루어지던 가정문제로서의 노인학대, 복지서비스의 미비 및 시설부족 속에서의 노인부양 문제, 그리고 노인인구의 양적인 증가에 따른 노년층의 생존문제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노인학대는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게 될 것이다.

## 2.2 노인학대의 개념적 정의

노인학대는 복지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1970년대 들어와서 사회문제로 제기 되기 시작했다[1]. Block&Sinnott[2]에 의하여 “매맞는 노인증후군(The Battered Elder Syndrome)”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매맞는 부모(The Battered Parent)”, “학대받는 노인(Abused Elders)”, 혹은 “노인학대(Elder Abuse)”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노인학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사회적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5][6].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우리사회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하다. 노인학대란 주로 가정폭력을 연구 할 때, 노인방치, 노인학대 혹은 노인폭력 등으로 사용되는데, 매맞는 노인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개념적 정의가 내려졌다[2]. 노인학대를 정의하는데 주요 측면은 학대라고 여겨지는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3].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학대에 다양한 정의들이 제시되었다. Block&Sinnott[2]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물리적 학대, 의료적 학대로 분류 하였으며, Douglass[3]는 수동적 방치, 능동적 방치, 언어 혹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분류 하였다. Sofia[4]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개인의 의학적 건강상태를 위협롭게 하는 행위, 자기결정에 따른 개인권 침해, 자기재산 및 소득에 대한 침해, 안전과 청결에 대한 방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의존적인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성인자녀, 손자녀, 친인척 등)들로부터 자행되는 노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 2.3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경우 정의의 명확성이나 일관성,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의 의도의 모호성 등의 다양한 외부 변수들이 관여되므로, 노인학대를 한마디로 개괄적인 정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및 서비스적 학대, 경제적 학대, 그리고 성적학대 및 자기방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6].

신체적 학대는 폭력이나 육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로는 노인을 강제로 방에 가두거나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이다.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고통이나 갈등 속에서 불안을 조성하고 폭언, 위협 혹은 모욕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로는 노인을 모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위협적이고 무시하는 언어 및 태도(욕설 및 고함 등)를 취하는 것이다. 방임 및 서비스적 학대는 노인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을 제공한다던가, 주거공간 제공, 혹은 질병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방임 및 서비스

적 학대는 적극적인 학대와 소극적인 학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로는 노인의 질병을 모른척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거나 약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은 목욕이나 배변 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행위이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돈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착취하므로써 노인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퇴직금, 임대료 등의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거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는 행위이다. 성적학대 및 자기방임은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성적 학대나 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장기 방임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인을 성적으로 학대한다거나 노인이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면서 식사 및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다.

## 2.4 노인학대의 이론적 접근 및 발생요인

노인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되므로 이론적 근거로는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사회학습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교환이론, 그리고 스트레스 이론등이 유용하다[5]. 먼저,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은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를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공격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없이 폭력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시절 학대 경험이나 부모들의 학대 광경을 보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러한 폭력경험이 노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옮겨져 노인학대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의하면, 노인과 그들을 부양하는 자녀사이의 태도, 행위,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보면, 부양부담 자체가 학대를 야기시킨다기 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과정, 그리고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갈등이 노인학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또한, 교환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에 개인적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노부모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혹은 다른 수발자)간의 교환자원의 불균형한 관계는 교환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측이 그렇지 못한 측에게 부정적인 행위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자신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환차원에서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역할 과중으로 인하여 역할긴장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생활전반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부모 부양에 심한 갈등을 느끼면서 학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의 발생은 어느 한 이론만으로도 설명 될 수 없으며, 언급된 여러 가지 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발생 요인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노인을 존경하던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언급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노인에게서 파생되는 개인적 요인, 가족적 환경요인, 그리고 노인과 그 가족이 통제 할 수 없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겠다. 먼저, 노인 개인적 요인으로 는 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발자나 주변인들로 하여금 학대 행위를 유발시키는 경우이다. 즉, 노인의 독특한 성격, 정신 및 신체장애, 알콜 중독,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높여서 학대 행위로 이어지게 만든다. 이와 같은 노인 개인적 요인들은 노인과 수발자가 함께 거주하는 환경속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게 된다. 두 번째 가해자 요인이다.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이나 과중된 부양스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학대의 경우이다. 특히, 병상에 있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생활이나 직장생활, 심지어는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가족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수발자의 부담이 되고, 노인이 없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로 인식되어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가족환경적 요인이다. 노인학대 발생의 가족환경적 요인으로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족환경 속에서 자녀들의 부양부담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가령, 생활비의 부담, 주거공간의 부족, 질병이 있을시에는 약값이나 병원비 조달의 어려움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적 요인이다.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 가정 후 사회"라는 복지정책의 원칙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복지실상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복지예산의 부족, 시설의 미비, 그리고 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부재 등은 노인 개인이나 수발자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다. 특히 미흡한 노인복지법은 그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우며, 노부모 부양 가족에 대한 복지체계나 지원의 부재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학대행위를 간접적으로 유발시키게 되는 셈이다.

### 3. 노인학대 사례

#### 3.1 신체적, 정서적 학대

피해노인은 과거에 재혼을 하였으며, 재혼자가 사망을 하자, 남편의 자녀들이 찾아와 물건을 던지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못나오게 하였다(여성노인, 77세).

학대행위자(아들)가 만취상태로 피해노인에게 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잠을 못 자게 행패를 부리고 '죽어라'라는 폭언을 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피해노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여성노인, 75세).

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큰 딸)와 함께 살고 있으며 피해노인의 친구를 집으로 불렀다며 학대행위자에게 욕설을 듣고, 쇠몽둥이로 맞았다(여성노인, 74세)

#### 3.2 정서적, 경제적 학대

피해노인은 20년 전에 부동산을 작은 아들에게 증여 해주었다고 한다. 증여 당시 구두로 '아버지한테 잘 하겠다. 모시겠다.' 등의 약속을 하였으나 이후 일체 돌보지 않았으며 남은 땅마저도 빼앗으려 한다. 학대피해노인은 20년 전에 증여해 준 부동산을 돌려 받고 싶어하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남성노인, 85세).

피해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피해 노인 앞으로 되었던 재산 2억 정도를 학대행위자(동거하고 있는 딸)가 피해노인의 동의 없이 학대행위자 명의로 옮겨놓았다. 학대행위자의 물건을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다(여성노인, 77세).

피해노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을 쓰지 못하고 보험회사로부터 9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금은 자녀들이 가져가서 썼고 피해노인이 자녀들에게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노인은 병환이 깊어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자녀들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남성노인, 68세).

피해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고 있다. 매달 수급비가 지급되는 날이면, 학대행위자(큰아들)가 찾아와 돈을 가져간다고 한다.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수도, 전기가 끊기기도 하였다(여성노인, 74세).

#### 3.3 방임, 서비스적 학대

피해노인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며 적절한 음식관리 및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노인은 치매증상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고 있으며 피해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이웃의 신고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여성노인, 72세).

피해노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가족이 1년 넘도록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병원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병원관계자가 가족과 연락을 취해도 보고 내용증명서도 발송 하였지만 보호자들은 피해노인을 외면하고 있다(여성노인, 74세).

피해노인은 자녀와 단절되어 찜질방에 지내고 있다. 피해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사무소에서 자녀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자녀는 과거에 피해노인이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피해노인을 거부하고 있었다. 앞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남성노인, 64세).

#### 3.4 성적 학대, 자기 방임

피해노인은 조현병 및 치매관리를 위한 병증관리와 치료를 통해 건강상태 개선 및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나 피해노인이 스스로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고 어떠한 도움도 거부하고 있다(여성노인, 79세).

피해노인은 3년 전 사고로 인한 관절과 허리의 통증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며 막걸리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지속적으로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살을 하고 싶다고 말하여 지역복지기관에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나, 병원에 가기를 완강히 거부 하였다(남성노인, 75).

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동거 남성 60세)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피해노인은 지적장애 3급이다. 피해노인은 학대행위자를 벗어나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여성노인, 66세).

## 4. 결론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살

퍼보면, 무엇보다도 노인 자신에 대한 스스로 그러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적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즉 노년이 되어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활기찬 활동을 하여 치매 및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능력을 키우며, 신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지나치게 자녀 의존적이 되지 말고, 가까운 친구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여행도 하면서 생활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한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병에 대하여 한 두 번 이야기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주변 가족원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아픈 곳에 대하여 끈질기게 이야기 하면서 동정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가족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노인들을 돌보는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인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노인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을 솔직히 이야기하여 상호간의 의존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구성원들 중 어느 한사람이 혼자서 노인을 돌보기보다는 서로 분담하여서 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족내의 성원들만으로 힘이 부칠 때에는 출가한 다른 자녀나 친인척의 도움을 간헐적으로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즉, 전통적인 아들선호 사상에 의하여 노인을 아들내외만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노인학대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을 돌보는 속에서 가족의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세대간의 교류를 느낄 수 있고, 가족이란 존재가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커다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처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노인학대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법적인 대응책을 찾아 보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제재권이 강화되는 법적인 행동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쉼터와 같은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확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차원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인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조치와 더불어 이에 대한 인적자원을 투자하여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인학대의 발생은 구조적인 상황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과중한 부양부담이나 수발부

담을 고려하여 병든 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수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케어서비스의 체계등의 사회적 원조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적 보호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행위는 다른 일반폭력과 다르며, 배우자 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다른 가정폭력과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학대 행위는 행위자체가 폭력이라는 점과 더불어 윤리적인 차원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폭력이라도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하는 문제로 이어지지만, 노인학대 행위는 비윤리적이라는 점에서 그저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인간의 도리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자신의 생존을 의존하고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보복이나 체면, 그리고 잘못하면 그나마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감추기에 급급하고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학대행위가 일부 극단적인 경우라고 미루어두고 무관심하게만 대응하는 부분이 노인학대를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속에서 노인들은 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망도 좁고, 가족구성원 외에는 누군가와 상담할 수 있는 대상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상 유지가 최선의 대안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피처는 오로지 “죽음”이란 생각에 극도의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노후대책이 미비한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자식밖에 의존할 대상이 없는 노년의 처지에서 노인들이 학대 받을 확률은 더욱 높아지지만 한다.

젊은 시절 아무리 활동적이었던 할지라도, 노년에 접어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주변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자신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사회적 관계망도 단절되고 자신을 돌보는 수발자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깊어지기만 한다. 따라서 비록 수발자에 의하여 학대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학대행위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노인의 생존적 의존성은 거의 본능적이므로 노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 및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가해자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켜야만 노인학대가 감소 될 것이다. 특히,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을 돌보는 일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힘겨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발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임이나 서비스

적 학대의 행위로 표출되기가 쉽다. 이제는 우리사회에서도 노인학대가 단순히 한 개인의 윤리적 행동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의 공동적인 책임의식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윤리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시점이라 본다.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의 제재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복지'개념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학대 받는 노인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고령이 많으며, 고령 노인의 상당수가 여성노인이라는 점에서 여성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Alexis, J. Walker, Sally.S.K. Martin, Laura L. Jones.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Vol 47, No.3, pp130~139, 1992.  
DOI: <https://doi.org/10.1093/geronj/47.3.S130>
- [2] Block, M. J. Sinnott. "Elder abuse:The Hidden Problem.", Briefing by the Select Committee on Aging, U.S.House of Representatives(96) June 23. Boston , MA. pp10~12, 1979.
- [3] Hickey, T., Douglass, R.L."Mistreatment of the Elderly in the Domestic Setting: An Explo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71, No.5, pp500~507, 1981.  
DOI: <https://doi.org/10.2105/ajph.71.5.500>
- [4] Sofia,L.F.,Marília,S.S.,Pedro,N.,Teresa,M. "Domestic violence against elderly with disability,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Vol 28, November, pp19~24, 2014.  
DOI: <https://doi.org/10.1016/j.jflm.2014.09.003>
- [5] M.C. Bond, K.H. Butler."Elder abuse and neglect: definitions, epidemiology, and approaches to emergency department screening". Clin Geriatr Med., Vol 29, No.1, pp257-273,2013.  
DOI: <https://doi.org/10.1016/j.cger.2012.09.004>
- [6] C.A. Walsh, J.L. Olson, J. Ploeg, L. Lohfeld, H.L. MacMillan. "Elder abuse and oppression: voices of marginalized elders",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Vol 23, No.1, pp17-42, 2011.  
DOI: <https://doi.org/10.1080/08946566.2011.534705>

배 나 래(Na-Rae Bae)

[중신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7년 9월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연구교수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교육컨텐츠, 문화산업

소 권 섭(Kwon-Seob So)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대학원 병원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2011년 2월 : 건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1981년 3월 ~ 2011년 3월 : 김안과병원 원무팀장, 원무부장, 행정부장 역임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의료, 병원행정